



情報經濟學의 發想

鄒 駉 謨
中央大 教授)

導 言

“圖書館學”이라는 學問名稱은 固陋하고 陳腐하고 특히 非論理的이기 때문에 이 名稱을 바꿔야 한다는 論難은 이미 7,8年 전부터 抬頭되었다. 그리하여 1973年에 梨花女大에서 全體 圖書館學科教授會를 가지고 論議한 바 “情報學”, “書誌學”, “文獻學” 등의 代案이 나왔으나 그 折衷案으로서 合意를 본 것이 “文獻情報學”이었다. 이것도 만족스러운 名稱은 아니었으며 여러가지 事情으로 이에 따른 學科名更新은 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筆者는 그동안 “文獻情報學”이라는 學問名稱을 客觀化하고 公式化하려는 의도에서 “情報科學의 屬性과 文獻情報學”(中大圖書館學報, 1973)이니 “文獻情報學의 形成論理”(한국비블리오, 1974)니 하는 拙文도 쓴바 있고, 文獻情報學原論(亞細亞文化社, 1977)이라는 書名으로 冊도 出版한 바 있다. (그러므로 이제 筆者가 또다시 다른 學科名을 舉論한다면 筆者는 志操도 없고, 마치 學問名稱만 가지고 歲月을 보내는 사람으로 認定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學問은 志操가 問題되는 것이 아니며 항상 完全하고 固定된 것이 아니라 보다 發展의이고 合理的인 것을 追究하는 것이라고 自慰하는 바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文獻情報學”이라는 이름도 만족스럽게 普及되지도 못하고 또한 그 論理를 展開하는데 不合理的하다. 예를 들면

“일반적인 낱말 構成方式으로 본다면 文獻情報”라는 用語는 “文獻” 그 自體가 記錄情報이므로 중복된 概念이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形式的으로는 “文獻”과 “情報”를 複合하여 造成한 말이라 할지라도 사실에 있어서는 “文獻情報學”은 종래의 圖書館學과 現代에 발전한 情報科學을 結合시키는 概念으로 造成된 것이다.”

하는 式으로 苟且스러운 설명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文獻情報學”이라는 낱말構成이

非論理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1. 現代圖書館學의 概念

그렇다면 現代의 圖書館學의 概念을 代表할 수 있는 論理的인 적절한 낱말은 없는가? 現代의 圖書館學이 “記錄情報의 認識·蒐集·組織·運用”에 관한 問題를 다룬다는 것은 明白한 사실인데 그 窮極의인 目的이 무엇인가? 그것은 情報를 效果의으로 檢索하여 效果의으로 利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뚜렷한 目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아무도 否認할 수는 없을 것이다. (종래의 圖書館學의 定義에는 거의 모두가 이 “效果的”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하면 現代의 圖書館學은 “情報를 效果的으로 蒐集·組織·蓄積해서 그 情報를 신속 精確하게 檢索하여 效果的으로 利用하게 하기 위한 科學的인 手段이나 方法을 研究”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效果的”이라는 말은 勞力·經費·時間을 最少限으로 節約해서 最善의 結果과 目的을 達成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말은 “經濟的”이라는 말과 相通하는 의미를 가지며 經濟學의 基本原理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여기에서 效果的이라는 말을 代身해서 “經濟的”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면 現代의 圖書館學은 “情報를 經濟的으로 蒐集·組織·蓄積해서 그 情報를 經濟的으로 檢索하여 利用하게 하기 위한 科學的인 手段과 方法을 研究하는 學問”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하여 筆者는 이미 現代의 圖書館學은 “文化暢達을 위한 經濟的方法論”(圖書館學의 새로운 體系, 中央大學校論文集, 1969)이라는 말을 한 바도 있거니와 “情報經濟學”이라는 이름이 論理的으로 妥當하다고 보는 것이다.

1. 經濟性追求의 根據

그러면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종래의 圖書館學이나 圖書館 또는 情報管理에 관련된 分野에서 情報의 蒐集·組織·蓄積·檢索·利用에 있어서 이 經濟性을

追求해 온 과정을 살펴 보고자 한다.

人類의 文化가 發生한 이래 人間은 필요한 情報를 效果的으로 찾아서 利用하기 위해서 여러가지로 勞力해 왔다는 것을 人類의 歷史를 통해서 역역히 엿볼 수 있다. 이것은 經濟的인 情報蓄積·檢索·利用手段과 方法의 開發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 뚜렷한 根據는 다음과 같이 言語의 發明→文字와 記號의 發明→圖書館의 形成→分類·目錄法의 發明→索引法의 發明→抄錄法의 發明→情報檢索의 機械化→情報處理의 自動化→世界情報流通體의 構想등의 과정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

1. 言語의 發明

人間社會에 있어서의 情報傳達의 가장 기본적인 段階는 言語의 發明에서 비롯 한다고 볼 수 있다. 人類는 文化社會에 이르는 최초의 단계에 言語를 發明하여 비로소 相互間에 言語에 의한 情報傳達이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時代를 言語에 의한 Communication時代라고 볼 수 있다.

이 時代의 情報는 人間사이에서 發生하여 人間相互間에 전달되고, 한 世代에서 다음 世代로 전달되고, 蓄積되어 情報의 蓄積量이 점차 增大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時代의 情報는 다만 人間の 頭腦속에만 記憶되고 蓄積될 수 밖에 없었으며, 人間の 頭腦는 情報를 蓄積할 수 있는 量의 限界가 있고, 또한 그 生命의 限界가 있기 때문에 情報의 增加量도 制限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文字 및 記號의 發明

그러나 人類는 약 6000年 내지는 7000年前부터 점차로 文字나 記號를 發明하여 이로써 모든 주요한 情報를 記錄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하여 人間은 모든 주요한 情報를 어떤 資料에 記錄하여 頭腦以外에 蓄積할 수 있었고, 그것이 거의 永久的으로 保存될 수 있었기 때문에 情報의 蓄積量은 눈덩이 처럼 비약적으로 증대할 수 있었던 것이다.

3. 圖書館의 形成

이와 같이 記錄情報의 量이 점차로 증대되자 사람들은 이를 個人的으로 各자 獨占하지 않고, 이를 일정한 場所나 施設에 모아둠으로써 이것이 圖書館을 形成하게 된 것이다. 물론 古代의 情報資料는 印刷資料가 아니고 筆寫된 制限된 資料로서 圖書館을 形成하게 된 原因은 情報資料를 보다 많은 사람이 共同으로 經濟的으로 利用한다고 하는 發想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分類·目錄法의 發明

記錄情報의 量이 점차로 증가하여 圖書館이 形成되자 그 많은 情報資料 가운데 各자가 필요한 情報資料를

어떻게 하면 가장 迅速하게 效果的으로 찾아 볼 수 있는 나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아무리 많은 훌륭한 情報資料가 축적되어 있다 할지라도 各자가 필요할 때 필요한 情報資料를 신속하게 效果的으로 活用할 수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意義가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圖書館에서는 일찍이 情報資料를 그 主題에 따라서 일정한 體系下에 分類 排列하고 이 龐大한 容積을 차지하고 있는 資料의 實物代身에 이를 가장 간단한 형태의 것으로 集約하고 압축하여 다른 形式으로 表現해서 편리하게 情報資料를 檢索할 수 있는 道具를 발명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目錄인 것이다. 또한 分類法이나 目錄法도 時代의 發展에 따라 보다 效果的이고 經濟的인 것으로 하기 위해서 새로이 制定하거나 改訂하여 發展시켜 왔다. 이와 같이 目錄은 利用者로하여금 時間과 努力과 經費를 최소한으로 절약해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情報를 效果的으로 檢索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發想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5. 索引의 發明

그러나 情報資料를 經濟的으로 檢索하고 利用하는데 있어서 目錄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다. 특히 19世紀 末期부터 定期刊行物과 非定期連續刊行物이 發展하고 增加하여 最新의 새로운 情報는 주로 여기에 수록되는 慣例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刊行物에 수록되는 斷片的인 雜多한 情報資料 가운데 各자 필요한 情報를 신속하게 檢索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索引이 發明된 것이다. 따라서 索引도 역시 필요한 情報를 經濟的으로 檢索하여 效果的으로 利用하기 위한 發想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6. 抄錄의 發明

한편 20世紀에 들어와서 專門分野의 定期刊行物의 종류와 새로운 情報記事量이 急進的으로 增加하므로써 특히 科學技術分野의 學者들은 各자가 調査하고 研究해야 할 情報의 量이 너무나 龐大하기 때문에 各자에게 꼭 필요한 情報만을 選別하여 調査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要求에 따라서 抄錄이 發生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도 역시 情報를 經濟的으로 檢索하여 利用하기 위한 發想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7. 情報檢索의 機械化

이상에서 설명한 目錄이나 索引이나 抄錄으로서는 單行本이나 論文記事의 單位別 情報檢索밖에 되지 않으며, 累加的인 蓄積과 檢索이 곤란하다. 그러나 情報 利用者들은 時間과 努力을 더욱 절약하기 위해서 單行本이나 論文記事속에 수록된 小項目, 즉 직접적이며 실제적인 小單位情報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에 이러한 要求를 充足시키기 위해서 Termatrix나 Card selector 등의 機械가 開發되었다. 그러므로 이것도 經濟的인 情報檢索을 위한 發想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8. 情報蓄積檢索의 自動化

人間의 慾望은 무한한 것이어서 이상에서 설명한 모든 情報檢索手段도 아주 滿足할 만한 것은 못되며 더욱 最善의 것을 요구하게 된다. 마침내 科學技術分野에서 開發한 Computer는 情報를 蓄積·檢索·編輯·印刷·制御·傳達를 自動으로 迅速 正確하게 할 수 있는 그야말로 萬能의 機械로서 이제 주요한 情報處理는 Computer에 의존하게 되었다. 현재로서는 이것이 最善의 經濟的인 情報處理檢索手段이 되고 있다. 이제는 情報處理에 있어서 Computer를 사용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은 다만 情報利用者와 情報管理機關의 經濟的相關性만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9. 世界情報流通體제의 構想

Computer에 의한 情報處理의 自動化가 이루어지므로서 世界情報流通體제를 構想하게 되었다. Computer는 電話와 마찬가지로 遠距離間的 即時傳達가 가능하므로서 한 地域社會內에 하나이상의 Computer만 設置하여, 여기에 情報를 蒐集·蓄積하고 각 末端地域에 각각 terminal만 設置하면 그 地域內의 情報蒐集·蓄積檢索이 自動的으로 流通될 수 있으며, 이것은 한 國家單位로도 가능하고, 또한 각 國家間에도 가능하게 되므로서 世界各國間的 情報流通體제를 構想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發想은 1967년에 Unesco와 ICSU(International Conference of Scientist Union)가 協同하여 추진해온 Unisist(World Science Information System)에서 비롯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Unisist는 “世界的인 科學情報機關 상호간의 協力을 촉구하는 媒介體”이지 아직 世界情報流通을 實現하는 機關은 아니다. 이러한 實現을 위해서 앞으로 남아있는 課題는 言語問題 書誌·索引·抄錄 등의 記述의 標準化問題, 情報의 Network形成問題 등 여러가지 課題가 남아 있다.

이와 같이 이상에서 설명한 모든 事項이 情報의 效果的(經濟的)인 蓄積·檢索·傳達·利用을 위한 發想에서 發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상에서 설명한 事項가운데 分類法과 目錄法은 종래의 圖書館學의 기본적인 教科이며, 앞으로 情報經濟學에서도 주요한 教科가 될 것이다. 또한 기타의 索引作成法이나 抄錄作成法, 그리고 情報檢索의 機械化나 情報處理의 自動化問題는 종래의 圖書館學에서는 疏外되었던 分野이지만 情報經濟學에서는 주요한 研究對象(教科)이 되어야 할 것이다.

10. 情報經濟學의 其他의 教科

현재까지 圖書館學의 教科目으로서 다루어 왔던 기타의 教科目도 모두 窮極的으로는 情報의 效果的利用을 위한 뚜렷한 目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우선 書誌學은 定說은 없지만 “印刷·製本·販賣·圖書館등과 같이 物質的인 圖書全般에 걸친 知識을 網羅한 圖書學”(ALA Glossary of Library Terms. Chicago, 1943)이라고도 하고, 또한 書目的 體系的인 作成 및 그 研究, 圖書의 物理的인 形態에 대한 分析記述, 原文의 正確과 完全與否 및 傳來의 分析研究(千惠鳳 書誌學의 體系, 국회도서관보, 5.1 1968. 5-15)라고도 하는데 여하튼 그 窮極의 目的은 讀者로 하여금 最善의 文獻을 選擇하여 이용하게 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書誌學도 情報의 效果的利用을 위한 學問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文獻選擇論」은 수많은 文獻가운데 보다 良質의 文獻을 選擇하기 위한 方法論으로서 情報의 效果的인 利用을 위한 것이며, 「參考文獻調查論」이나 「主題別參考文獻調查論」도 주요한 參考文獻의 意義 種類 및 그 利用法 등을 다루는 것으로 最善의 情報를 效果的으로 이용하게 하는데 있는 것이다.

또한 「圖書館組織管理論」이나 「情報管理論」은 情報管理機關에 있어서 情報를 가장 效果的으로 利用할 수 있는 科學的인 運營管理方法을 다루는 研究分野이므로 설명을 더 부연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기타에도 情報科學分野는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종래의 圖書館學의 分野에서 다루어 왔던 어떠한 研究나 教科目도 직접적이던 간접적이던 窮極的으로는 情報를 效果的으로 또는 經濟的으로 이용하기 위한 目的을 가지지 않은 것이 없다.

II. 用語에 대한 先入見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情報經濟學”이라는 名稱이 論理的으로 妥當하다 할지라도 或者에게는 “情報”라는 用語와 “經濟學”이라는 用語에 대해서 약간의 拒否反應이 있는 것 같다.

“情報”라는 用語에 대해서는 아직도 CIA나 FBI, 또는 軍事諜報나 犯罪搜查情報과 같은 先入見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或者는 최근 新聞에 많이 나타나는 市場情報나 生活情報나 交通情報나 하고 世俗的으로 너무 많이 쓰이기 때문에 學問名稱으로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學者가 이러한 先入見에 구애되어 論理性을 의면한다면 知識의 啓發이나 創造가 곤란해질 것이다.

“情報”의 概念은 (관련된 分野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의 思考活動을 誘發시키

는 要因이며, 學問이나 知識이나 科學이나 技術의 要因이라는 점에서는 共通하는 것으로서 모든 學問과 不可分の 밀접한 關係를 가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教育情報니 學術情報니 科學技術情報니 醫學情報니 藥學情報니 法學情報니 經濟情報니 產業情報니 하는 學問과 너무나 밀접하고 친근한 情報가 있지 아니한가? 그렇다면 “情報”라는 用語의 使用을 忌避하거나 敬遠한다면 더구나 現代의 圖書館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따라서 만약 一般社會에서 情報라는 用語가 어느 偏狹된 概念으로만 認識되고 있다면 이것을 忌避하거나 敬遠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學者들이 이를 校正하고 周知시키는데 努力해야 할 것이다.

한편 “經濟學”이라는 用語에 대해서 現代의 圖書館學과 經濟學은 그 內容이나 性格上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論及한 바와 같이 經濟學은 가장 상식적으로 말해서 勞力·經費·時間을 最少限으로 節約해서 最善의 結果나 目的을 達成하는 原理와 方法을 다루는 學問으로서 現代圖書館學의 內部에 흐르는 原理나 目的이 이와 일치하는 것이다. 다만 圖書館學과 經濟學 自體만을 비교해서 생각한다면 물론 그 內容이나 性格이 各各 다르다. 그러나 情報經濟學은 “정보를 經濟적으로 處理하는 學”이라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經濟學과의 對比를 意識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情報經濟學을 情報·經濟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情報經濟·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중세의 圖書館學에서도 이러한 經濟性때문에 1887年 Melvil Dewey가 처음으로 Columbia大學에 圖書館學科를 設置했을때 그 名稱을 The School of Library Economy라고 한 것이 아닐까? 현재도 英國에서는 Library Economy라는 用語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用語를 비록 “圖書館經濟”나 圖書館經濟學이라고 直譯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圖書館의 經濟的運營管理法를 다룬다는 의미에서 주어진 名稱인 것만은 틀림없을 것이다.

또한 Ranganathan의 “圖書館學의 五法則” 가운데 「第四法則」에서 “讀者의 時間을 節約하라”(Save the time of readers)는 말이 있고, 이에 대한 설명을 요약하면 “讀者가 冊을 利用하기 위해서 時間을 浪費해서는 안된다. 利用할 필요가 있을때는 빠른 速度로 提供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書誌의 編成, 目錄記入의 改善, 書庫案內, 書誌, reference service의 速度化, 建築의 改善 등이 필요하다”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가 말하는 “讀者의 時間節約”은 사실상 努力이나 經費節約 까지도 內包하는 것으로 解釋되며, 이것

은 동시에 經濟性을 追求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經濟學”이라는 用語는 그 單獨으로 쓰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最少의 費用으로 最大의 效果를 얻는다”고 하는 經濟原理가 적용되어야만 사용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예를 들면 論理學을 보통 思惟經濟學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效果的인 思惟를 위한 學問이라는 概念이 쉽사리 認識되는 것으로 보아서도 알수 있다.

結 言

結論의으로 말해서 現代의 圖書館學은 情報를 效果的(經濟的)으로 蒐集·組織·蓄積해서 그 情報를 效果的(經濟的)으로 檢索하여 效果的으로 利用하게 하기 위한 科學的인 手段과 方法을 研究하는 學問이라고 말할 수 있으므로 이는 “情報經濟學”이라는 이름이 論理的으로 가능하고 妥當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圖書館學처럼 이미 歷史를 가진 龍大한 內容을 지니는 學問을 代表할 수 있는 짧은 名稱을 누구에게나 共感이 가고 滿足스럽게 命名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圖書館學의 傳統이 오랜 美國이나 英國에서도 다른 學問처럼 一元化된 名稱을 찾지 못하고 Library Scienc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Library Service, Library School, Librarianship, Library Studies 등 가지 각색으로 命名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難點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에서 提示한 것처럼 “情報經濟學”이라고 하는 名稱이 당장 누구에게나 共感이 가고 滿足하리라고 自負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學問名稱이나 學科名稱을 이와 같이 更新하느냐의 與否는 2次的인 問題로서 衆意에 따라야 할 것이다.

책속에 있는 길

읽으면 나의 길

독서하는 국민

발전하는 국가